

중년여성의 의복태도와 관련요인연구

이 화 지 · 한 명 숙

상명여자대학 가정학과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othing Behaviors and the Personal Variables of the Middle-Aged Women in Seoul

Wha Jee Lee and Myung Sook Han

Dept. of Home Economics, Sang Myung Women's University

(1983. 7. 25 접수)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as a useful material not only to understand the clothing behaviors and the personal variables (age, education, occupation, yearly clothing expenses, weight, and persons who influence on one's choice of clothes) of the middle-aged women in Seoul, Korea but to lend itself to other uses concerning attitudes toward clothing.

For the measurement of the attitudes toward specified activities related to clothing use, attitude method by Mary F. Parnak (1968) was reworded and modified for use with the sample for this study.

Analysis of the data revealed that the clothing behaviors of 450 women 30 to 59 years of age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personal variables.

First, women in thirties showed the most positive clothing attitude of the three age groups. The younger age groups were positively related to relief from boredom through clothing, intensity, sureness, and involvement of attitude among eight attitudes related to clothing.

Second, the positiveness of relief from boredom through clothing, intensity, sureness, and involvement of attitude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education level. On the other hand, dressing for self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 level of education.

Thir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amount of the clothing expenses and dressing for others, tactual pleasure through clothing, intensity, sureness, and involvement of attitude.

Among the personal variables of the middle-aged women, age, the educational level, and the clothing expenses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clothing behaviors, while job, weight, and the persons who influence on one's choice of clothes have no relationship.

The extensive interpretation on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have to be taken with deliberation. For the more practical material researches on the clothing behaviors of the middle-aged women should be continued steadily in every possible way.

I. 서 론

인간활동의 영역에서 의복의 선택은 개인의 가치와 생활양식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며 의복의 착용은 수치관념이나 신체보호의 욕구보다 사회적 우월성이나 심리적인 만족감등의 욕구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Horn¹⁾은 말했다.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의복의 중요성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그 의복을 착용한 사람의 연령, 性, 신분, 직업, 사회경제적지위, 가치관, 태도, 성격, 지적수준 자아개념, 심리적 상태등을 무언중에 전달하여 주는 상징적 역할을 하는 데 있다.

의복은 인간의 어느 연령층에서나 그들의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년여성들의 의복행동과 그에 따르는 심리적 만족도는 가정과 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중년여성들의 관련변인과 의복착용의 태도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의복연구에서 의복의 실제적인 면과 사회적 개인적인면의 상호관련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문헌조사

모든 의복은 신체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 유도된 것이며 의복이란 개인의 주관적 감정과 단체의 소속감을 나타내는 수단이라고 Harms²⁾는 말하였다. Kefgen과 Specht³⁾의 의복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고 하였다. 성인이 되었을 때 그 흥미는 일반적으로 감소되며 그 이유는 인생의 다른 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중년기에는 의복에 대한 독특한 문제를 지니며 또 신체의 변화에 따라 매우 의복을 의식하게 된다. 중년기의 연령구분에 대하여 최근의 저서에서 Hurlock⁴⁾은 40대 초반에서 시작되어 60대 초반까지 지속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를 30세부터 59세까지로 한정하였으며 이는 김순분⁵⁾의 연구를 토대로 하였다.

중년의 옷에 대한 관심도는 심미적인 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도 강조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Fraser⁶⁾는 의복에 관한 한 충족되는 심리적 욕구는 중년층에서도 근본적으로 똑같다고 보았다. 중년층 역시 애정과 사회적 접촉이 필요하다. 의복에 대한 흥미, 태도 습관은 연령에 관계없이 젊었을 때와 거의 같은 것이 다라고 하였다. 또 오늘날과 같은 심리적 자아도취시

대에서는 의복이란 자신의 외모 또는 체형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였다. 의복의 선택에 있어 연령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신이 선택하는 의복형태는 자신의 신체뿐만 아니라 취향, 계급, 가치관 착복자의 흥미 혹은 유행에 대한 흥미의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고 Fraser는 밝혔다. 중년기 여성은 연령의 증가로 인하여 허리선이 완전히 사라지고 몸은 복부 가운데 부분이 비대해지며 어깨는 둥글어지고 늘어지게 되는 신체적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변화로 중년여성의 의복행동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 중년기 여성은 의복의 매력적인 측면에 대해 젊은 여성보다 더 신경을 쓰게된다. 중년기에는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직업활동, 사회활동 등에서 성취도가 절정에 이르고 정서, 능력,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원숙한 수준에 도달하는 시기이나 생리적 균형이 상실되어 신체적, 생리적 변화를 겪게된다. 이러한 변화는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 안정의 결여, 우울 증 주의집중력의 약화등 심리적 갈등을 수반한다는 심각성이 따른다. 따라서 침체감과 흥미의 상실등이 나타나 신체적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하려는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만족할만한 신체적 생활조건을 수립하여 새로운 취미, 사회활동, 여가이용의 방법을 찾게된다⁷⁾. Ryan⁸⁾은 의복선택, 용도, 유행등 의복에 관한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연령, 사회적 배경, 직업, 지적 수준, 가치관등에 따라 의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Rosencranz⁹⁾는 나이가 많은 여성보다 젊은 여성이 의상흥미에 대해 더욱 관심이 높고 월수입이 적은 여성이 의상흥미가 낮으며 도시에 사는 여성이 지방에 사는 여성보다 의상흥미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그의 연구에서 밝혔다. 김애리¹⁰⁾는 주부의 연령층이 높을수록 의상계획을 세우지 않는 비율이 높으며 연령층이 낮을수록 의상계획의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주부의 연령과 피부비 지출은 상관관계가 높다고 그의 연구에서 밝혔으며 한명숙¹¹⁾은 주부의 연간피부비 지출액은 10만원 이하가 가장 많고 50만원이상 지출하는 주부도 있다고 했으며 지방주부에 있어 고액의 피부비 지출이 서울주부보다 많다고 했다. 또 김애리¹⁰⁾는 주부의 학력에 따라서도 피부비지출은 변하고 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피부비도 증가하는 것을 알수있다고 밝혔다. 또, 이인자¹²⁾는 직업이 있는 주부와 직업이 없는 주부간의 의상가치의 차이점을 알아 본 결과 직업이 있는 주부일수록 의상의 사회적 가치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직업을 갖지 않은 주부는 전체

적으로 의상흥미가 낮은 편이나 의복구성 및 제작에 관해서와 의류계획, 정리에 관해서는 흥미가 약간 높다고 나타났다¹³⁾. 박찬부¹⁴⁾는 그의 연구에서 의복행태는 월수입과 가장 관련이 많고, 그 다음 직업유무와 관련이 많다고 밝혔다. 이인자¹³⁾는 연령이 낮을수록 의상디자인과 유행에 관한 흥미가 높으며 가정의 월수입이 증가할수록 의상디자인과 유행에 관한 흥미, 의복의 사회심리학적 역할에 관한 흥미가 높았다고 밝혔으며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의복구성, 제작, 계획, 정리에 관한 흥미는 낮으며 의복디자인과 유행, 의복의 사회심리학적 역할에 관한 흥미는 비교적 높다고 했다.

Kefgen 등³⁾은 성인남녀의 의복의 흥미에 대한 정도는 그들이 의양에 두는 태도나 가치관정도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 가족적, 교육적, 직업적 그리고 환경적 배경에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Ryan은¹⁵⁾ 어떠한 사회환경에서도 의복을 잘 입었다고 느낄 때는 자신감이 생겨 모든 일에 참여하고 싶어지며 자신의 옷과 용모에 대하여 더욱 의식하게 된다. 반대의 경우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불안감과 소외감마저 느끼게 되며 더욱 우울한 기분이 된다고 하였다. Horn¹⁶⁾은 친구와 낯선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자신의 의양에 대하여 관심을 두며 자신의 가족에 대하여는 거의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주의나 평가를 의식하는 가운데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물체의 표면을 고찰하는데 있어 시각적, 촉각적 경험으로 판단하는 의복의 미적가치에 대해서도 캐·블레이크의 심리적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¹⁷⁾. Compton과 Hall¹⁸⁾의 조사결과에서도 부드러운 질감의 옷은 우아함,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가벼운 기분이 되며, 반면 뻣뻣한 옷은 딱딱하고 어색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Creekmore¹⁸⁾는 300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가치관과 인간의 욕구 및 의상에 대한 관심간의 관계연구에서 심미성을 증시하는 사람은 의상의 질감에 대한 관심이 높고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의상의 가격, 관리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은 유행의 끊임없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 처럼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되어서 인생자체가 착복행위라고 볼 수 있다.

Ⅲ. 가설 및 용어정의

1. 가설

가설 1) 의복태도는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

다.

가설 2) 의복태도는 교육정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

가설 3) 의복태도는 직업유무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

가설 4) 의복태도는 연간의상지출비 수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

가설 5) 의복태도는 체중변화유무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

가설 6) 의복태도는 의복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람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

<부가적 관심>

1. 연령과 검사변인과의 상관관계.
2. 학력과 검사변인과의 상관관계.
3. 직업유무와 검사변인과의 상관관계.
4. 체중변화의 유무와 검사변인과의 상관관계.

2. 용어정의

의복태도(Clothing Attitude)는 자기 자신의 의복에 대한 관심, 사용, 만족감, 선택등을 의미하며 아래의 변인을 포함한다.

① 자신을 위한 의복착용(Dressing for self); 자신의 육체적 매력에 대한 만족을 느끼기 위한, 즉 美적 만족을 위한 욕망의 의복착용.

② 타인을 위한 의복착용(Dressing for others);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의복착용으로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 의복착용.

③ 의복을 통한 촉각적 기쁨(Tactual pleasure through Clothing); 의복의 질감에서 느끼는 촉각각적인 기쁨을 말함.

④ 착복을 통한 실험화(Experimentation in Clothing); 착복을 실험함으로써 야기되는 기쁨과 흥분, 즉 새롭고 좀 다른 것을 나타내는 행위, 새로운 형의 옷 구입행위등을 말함.

⑤ 착복을 통한 권태로 부터의 해방(Relief from boredom through Clothing); 권태를 벗어나기 위한 착복행위로 즉 옷차림에 따라 기분, 감정에 영향을 받는 정도를 말함.

⑥ 태도의 강렬성(Intensity of Attitude); 그 행위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혹은 강력한가를 말함.

⑦ 태도의 확신성(Sureness of Attitude); 그 행위에 행위자가 얼마나 확신이 있는가를 말함.

⑧ 태도의 집중성(Involvement of Attitude); 그 행

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가를 말함.

IV. 연구방법

1. 측정도구

1) 의복태도검사

본 연구의 의복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Pasnak¹⁹⁾의 척도는 모두 6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을 위한 의복착용, 타인을 위한 의복착용, 의복을 통한 촉각적 기쁨, 착복을 통한 실험화, 착복을 통한 권태로 부터의 해방등 5가지 행위에 관한 것이다. 또한 각 행위마다 행동에 관한 양상, 혹은 감정을 설명하는 항목이 10개씩있으며, 또 태도의 강렬성, 확신성, 집중성에 관련된 것이 각각 5항목으로 되어있다. Pasnak이 다룬 태도설명은 Edwards와 Kilpatrick의 "Scale-Discrimination Technique"방법에 의거한 것이다. 설문응답은 5가지 의복선택 결과에 관하여 매우 긍정적인 것에서부터 매우 부정적인 것까지 망라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60명의 중년여성들에게 예비조사를 한 후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각 문항에는 "크게동의", "약간동의", "중간", "약간반대", "크게반대"의 5단계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점수는 1, 2, 3, 4, 5로 주어 합하였다. 즉, 점수가 낮을수록 의복태도에 대한 흥미가 높음을 의미한다.

2) 배경조사

응답자의 배경사항으로는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변인들, 즉 연령, 교육정도, 직업, 연간지출비와 체중변화유무 및 의복선택시 영향을 주는 사람에 대한 3문항을 포함시켰다.

2.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은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30세에서 59세에 이르는 중년여성으로서 자료수집은 응답자 자신이 설문지에 대답하도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1982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구자와 20

명의 보조자가 서울시내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지역을 임의로 선정하여 486부를 배부하고 그 중 478부를 회수하였다. 여기서 완전하게 응답한 450부를 선정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3. 통계처리

조사대상자 450명에 대하여 배경요인 분포를 백분율로 보았고 이것을 토대로 하여 배경요인에 따른 의복태도의 8가지측면에 관한 영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처리를 하였고, (F-test, t-test)배경요인 상호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에 의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V. 결과 및 논의

A. 조사대상자의 배경요인

조사대상자의 배경요인 분석은 <표 1-1>과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표집대상의 연령별 분포는 40~50대가 56.5%이며,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이 86.3%로 대부분이었으며, 직업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73.8%였다.

<표 1-2>에서는 연간지출액이 30만원이상이 33.3%나 되었으며 체중의 변화에서 결혼 후에 5kg 이상의 체중증가를 보인 사람이 47.1%, 5kg 이하의 체중증가는 30.4%였으며 의복선택시 영향을 주는 사람은 본인일 경우가 59.3%로 가장 많았다.

B. 가설 검증 :

환경요인과 의복태도와의 관계

1. 연령과 의복태도와의 관계

연령에 따른 의복태도는 <표 2>와 같이 자신을 위한 의복착용, 타인을 위한 의복착용, 옷을 통한 촉각적 기쁨, 그리고 착복을 통한 실험화는 모두 연령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착복을 통한 권태감에서의 해방, 의복태도의 확신성은 연령이 적

<표 1-1>

종별	연 령			교 육 정 도				직 업 유 무	
	30~39	40~49	50~59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있 다	없 다
No	196	202	52	57	173	195	25	118	332
%	43.6	44.9	11.6	12.7	38.4	43.3	5.6	26.2	73.8

<표 1-2>

년간 상비지출(만원)					체 중 변 화(kg)					의상선택시 영향을 주는 사람				
10~20	20~30	30~40	50 이상	없다	1~5 증가	5~10 증가	10~15 증가	15 증가	감소	남편	형제	친구	직장 동료	본인
179	121	91	59	95	137	121	72	19	6	91	26	62	4	267
39.8	26.9	20.2	13.1	21.1	30.4	26.9	16.0	4.2	1.3	20.2	5.8	13.8	0.9	59.3

<표 2> 연령별로 본 의복태

의복태도	연령		30대 (n=196)		40대 (n=202)		50대 (n=52)		Fratio	차 이
	Mean	S.D	Mean	S.D	Mean	S.D				
자신을 위한	26.97	3.95	27.28	4.14	27.40	3.41	0.418	N.S		
타인을 위한	27.12	4.05	27.42	4.65	28.60	4.02	2.382	N.S		
축각적 기쁨	31.46	3.80	31.49	3.85	32.17	2.98	0.811	N.S		
실험 화	27.93	3.66	27.91	4.54	28.73	3.80	0.908	N.S		
권 태 감	25.60	3.23	26.44	3.41	27.83	2.83	10.278	**		
강 령 성	11.11	3.10	11.79	3.16	12.27	3.09	3.910	*		
확 신 성	12.45	3.27	13.35	3.08	14.42	3.04	9.283	**		
집 중 성	15.36	3.49	16.15	3.01	16.23	3.22	3.423	*		

** : p < 0.01
N.S: not Significant

을수록 의복착용시 권태감에서 벗어나는 느낌을 지니며 더 의복태도에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p < 0.01). 또 의복태도의 강렬성, 집중성 역시 연령과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 연령이 적을수록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p < 0.05). 즉 연령에 따라서 의복태도는 크게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나 그 의복태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써 의복태도는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이라는 가설 1)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이는 앞에서 밝힌 나이가 많은 여성보다 젊은 여성이 의상흥미에 대해 더욱 관심이 높다고 밝힌 Rosencranz⁹⁾와 20대의 젊은 세대가 의상행태 전반에 걸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그 중 흥미성과 전의상관심성에서 가장 관심이 많다고 한 박찬부¹⁰⁾의 연구보고는 이 결과를 잘 풀이해 준다.

2. 학력과 의복태도와의 관계

학력에 따른 의복태도는 <표 3>과 같이 자신을 위한 의복착용은 학력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p < 0.01).

또, 타인을 위한 의복착용, 옷을 통한 축각적 기쁨, 착복을 통한 실험화는 모두 학력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착복을 통한 권태감에

서의 해방, 의복태도의 강렬성, 확신성, 집중성 등은 모두 학력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p < 0.01).

이상에서 의복태도는 교육정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고 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 4가지 의복태도는 의복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의복태도의 강렬성, 확신성, 집중성, 권태감에서의 해방감이 크다는 것은 의복에 대한 흥미가 높음을 의미한다. 가설이외의 부가적 관심에서 학력과 의상비지출은 正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피복비가 증가된다는 김애리¹⁰⁾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만족감을 얻기 위한 의복착용은 소극적이거나 의복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직업유무와 의복태도와의 관계

직업유무에 따른 의복태도는 <표 4>와 같이 자신을 위한 의복착용, 옷을 통한 축각적 기쁨, 착복을 통한 실험화, 착복을 통한 권태감에서의 해방, 의복태도의 강렬성, 확신성, 집중성 모두 직업유무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으나 타인을 위한 의복착용은 직업이 있는 중년여성이 보다 더 타인을 위하여 의

〈표 3〉 학력에 따른 의복태도에 관한 변량분석

연령 의복태도	중학교(n=57)		고등학교(n=173)		대학교(n=195)		대학원(=25)		Fratio	차 이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자신을 위한	26.46	4.56	27.68	4.06	26.65	3.71	29.16	2.87	4.911	**
타인을 위한	27.95	3.50	27.76	4.53	26.99	4.43	27.28	3.92	1.289	N.S.
축각적 기쁨	31.61	3.11	31.31	4.19	31.71	3.58	31.88	2.85	0.419	N.S.
실 험 화	28.18	3.79	28.32	4.25	27.55	4.06	29.08	3.83	1.770	N.S.
권 태 감	26.95	3.04	26.72	3.34	25.61	3.42	26.12	2.52	4.521	**
강 렬 성	12.84	3.26	11.76	3.20	11.04	2.89	11.12	3.56	5.494	**
확 신 성	14.86	2.77	13.29	3.24	12.57	3.04	11.64	3.72	9.915	**
집 중 성	17.25	2.50	15.91	3.37	15.37	3.13	15.40	4.22	5.180	**

** : p < 0.01

N.S. : not Significant

〈표 4〉 직업유무로 본 의복태도에 관한 변량분석

의복태도	직업 있다(n=118)		없다(n=332)		t-Value	차 이
	Mean	S.D.	Mean	S.D.		
자신을 위한	26.90	3.68	27.25	4.08	.83	N.S.
타인을 위한	26.71	4.62	27.68	4.22	2.08	*
축각적 기쁨	31.17	3.68	31.69	3.75	1.30	N.S.
실 험 화	27.94	3.65	28.04	4.25	.22	N.S.
권 태 감	25.89	3.23	26.36	3.37	1.30	N.S.
강 렬 성	11.47	3.43	11.58	3.04	.34	N.S.
확 신 성	12.62	3.22	13.25	3.21	1.84	N.S.
집 중 성	15.62	3.46	15.89	3.20	.77	N.S.

* : p < 0.05

N.S. : not Significant

〈표 5〉 의상비 지출에 따른 의복태도에 관한 변량분석

연령 의복태도	년간의상비 (만원)		10~20(n=179)		20~30(n=121)		30~40(n=91)		50이상(n=59)		Fratio	차 이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자신을 위한	27.07	4.43	27.31	3.77	26.97	3.02	27.42	4.30	0.240	N.S.		
타인을 위한	27.42	4.27	27.93	4.51	27.80	3.87	25.81	4.61	3.551	*		
축각적 기쁨	31.90	4.16	32.43	2.84	31.69	3.54	30.90	4.02	3.790	**		
실 험 화	27.70	4.28	28.72	3.94	28.25	3.77	27.12	4.17	2.606	N.S.		
권 태 감	26.38	3.68	26.41	2.89	26.13	3.03	25.98	3.56	1.022	N.S.		
강 렬 성	12.20	3.21	11.53	2.99	11.25	2.63	10.08	3.49	7.409	**		
확 신 성	13.77	3.07	13.10	3.18	12.68	2.80	11.61	3.77	7.595	**		
집 중 성	16.77	3.09	15.78	2.91	15.41	2.73	13.66	4.04	15.433	**		

* : p < 0.05

** : p < 0.01

N.S. : not Significant

복을 입는 경향이 있었다($p < 0.05$).

이상에서 의복태도는 직업유무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고 한 가설 3)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이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직업이 없는 여성보다 대인관계, 의복의 사회적 면을 중시하여 자신의 만족감이나 안락감, 유행보다는 타인을 의식하는 의복태도가 매우 강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결과는 직업여성과 비직업여성간에는 타인을 위한 의복태도에 해당되는 의존성이나 인정성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고 한 朴吉順²⁰⁾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유직자가 무직자보다 의식성의 점수가 높다는 朴贊富¹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4. 의상비 지출과 의복태도와의 관계

연간의상비 지출과 의복태도의 관계는 <표 5>와 같이 자신을 위한 의복작용은 의상비 지출액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으나 타인을 위한 의복작용은 의상비지출이 50만원이상인 집단에서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p < 0.05$) 옷을 통한 촉각적 기쁨도 역시 의상비 지출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p < 0.01$). 착복을 통한 실험화, 권태감에서의 해방은 의상비지출에 따라 의복태도의 강렬성, 확실성, 집중성등은 의상비지출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써 의복태도는 연간의상비지출 수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고 한 가설 4)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여성들은 체면을 중시하여 자신의 심리적인 만족을 위한 것보다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착복행위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의상비 지출이 많은 중년여성은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신의 의복행위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면을 나타낸다고 해

석할 수 있다. 이는 의복의 사회심리적 측면의 흥미와 수입과도 상당히 유의성있는 관계를 나타내어 30만원 이하의 계층에서는 의복의 사회적 또는 심리적 역할에 대한 흥미가 낮으나 수입이 증가할수록 높아진다는 이 인자²¹⁾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5. 체중변화유무와 의복태도와의 관계

체중변화유무에 따른 8가지 의복태도의 상관관계는 <표 6>과 같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즉, 중년기의 체중이 미혼 때보다 증가한 경우나 변하지 않은 경우 모두 의복태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써 의복태도는 체중변화유무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는 가설 5)는 긍정되었다. 가설 5)의 부가적 관심에서 체중변화와 연령과는 正的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증가하나 그 자신의 의복에 대한 흥미, 관심도, 의복행태등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중년기여성의 체중변화와 의복태도와의 상관관계를 밝혀보고자 하였는데 이 결과에 의하면 체중변화유무는 의복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의복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람과 의복태도

<표 7>에서 의복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람에 따른 의복태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대부분의 의복태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으나 착복을 통한 권태감에서의 해방은 남편에 의해,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의상을 선택하는 경우에 더 느끼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의복태도는 의복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람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고 한 가설 6)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표 6> 체중변화 유무에 따른 의복태도에 관한 변량분석

의복태도	없다(n=95)		있다(n=355)		t-Value	차 이
	Mean	S.D.	Mean	S.D.		
자신을 위한	27.69	4.24	27.02	3.90	1.48	N.S.
타인을 위한	27.52	4.31	27.40	4.36	0.23	N.S.
촉각적 기쁨	31.20	3.86	31.65	3.70	1.04	N.S.
실험화	28.27	4.29	27.94	4.05	0.70	N.S.
권태감	26.04	3.19	26.28	3.38	.63	N.S.
강렬성	11.07	3.34	11.52	3.09	0.43	N.S.
확신성	12.87	3.34	13.14	3.19	.72	N.S.
집중성	15.87	3.61	15.80	3.17	0.19	N.S.

N.S.: not Significant

〈표 7〉 의상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람에 따른 의복태도에 관한 변량분석

의상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람 의복태도	남편 (n=91)		형제 (n=26)		친구 (n=62)		직장동료 (n=4)		본인 (n=267)		Fratio	차이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자신을 위한	26.81	4.71	27.96	3.98	26.58	3.68	27.00	3.92	27.34	3.76	0.900	N.S.
타인을 위한	27.40	4.42	26.46	3.25	27.23	3.85	28.50	3.33	27.56	4.54	0.475	N.S.
촉각적 기쁨	31.59	3.88	32.00	3.81	30.81	3.86	32.25	3.40	31.66	3.66	0.803	N.S.
실 험 화	28.11	4.04	27.35	4.55	27.13	4.33	24.75	6.70	28.30	3.95	1.873	N.S.
권 태 감	26.58	3.49	25.00	3.38	25.58	3.53	23.00	5.23	26.43	3.16	2.958	*
강 렬 성	11.96	3.28	11.31	2.91	10.79	2.79	10.75	2.99	11.63	3.18	1.432	N.S.
확 신 성	13.53	3.35	12.62	2.90	12.34	2.09	11.75	1.71	13.17	3.23	1.632	N.S.
집 중 성	16.16	3.51	14.85	3.71	15.32	2.89	16.75	1.71	15.90	3.23	1.310	N.S.

*: p<0.05

N.S.: not Significant

〈표 8〉 조사대상자의 환경요인간의 상관관계

	의상비지출	체중변화유무
연 령	-.1078*	.1756**
교육 정도	.3757**	.1000*
직업 유무	-.1200	.1249**
체중변화유무	.0326	

*: p<0.05

** : p<0.01

C. 가설이외의 부가적 관심

조사대상자의 배경의 상호관계는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연령에 따른 검사변인과의 상관관계는 연령과의상비지출과는 負적인 관계가, 체중변화유무와는 正의인 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대부분의 중년여성은 미혼 때보다 체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의상비지출과 負적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육정도에 따르는 검사변인간의 상관관계는 의상비지출, 체중변화유무와 학력과는 모두 正적인 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셋째, 직업유무에 따른 검사변인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의상비지출은 직업유무와 의미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체중변화와 직업유무는 正적인 관계가 나타났다(p<0.01).

넷째, 체중변화유무에 따른 검사변인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모두 유의적인 관계가 없었다.

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들을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연령이 적을수록 의복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착복을 통한 권태감에서의 해방, 의복태도의 강렬성, 확신성, 집중성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교육정도에 따른 의복태도에서는 자신을 위한 의복착용은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낸 반면, 권태감에서의 해방, 의복태도의 강렬성, 확신성, 집중성은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셋째, 중년여성의 직업유무는 대부분의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타인을 위한 의복착용은 직업이 있는 주부가 직업이 없는 주부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의상비 지출과 의복태도에서는 의상비지출이 많을수록 의복행위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타인을 위한 의복착용, 옷을 통한 촉각적 기쁨, 의복태도의 강렬성, 확신성, 집중성에서 나타났다.

다섯째, 중년여성의 체중변화유무는 모든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의복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람과 의복태도의 관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의복태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 단, 착복을 통한 권태감에서의 해방감은 남편에 의해,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의복선택을 하는 집단에서 더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위의 결과를 보면 중년여성의 의복태도와 환경요인과의 관계에서 연령, 학력 의상비지출에 따라 여러가지 의복태도에서 의의있는 차이를 나타냈으나, 중년여성의 직업유무, 체중변화유무, 의복태도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의복태도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아니 하였다.

주어진 자료에만 의거한다면 도시의 중년여성들에게 있어 관련요인중 연령, 학력, 의상비 지출액은 여러가지 의복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으며 또 직업유무, 의복선택시 영향을 주는 사람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결혼 후에 오는 과대한 체중증가는 의복태도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여 계층별 혹은 지역별로 나누어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되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Marilyn, J. Horn, *The Second Skin*, Bosten; Houghton Mifflin Company, 1~12, (1975)
- 2) Harm, E., *The Psychology of Clothes*, *Amer. J. of Soc.*, 44, 239~250, (1938)
- 3) Kefgen, Mary and Touchie-Specht Phyllis, *Individuality*.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51, (1976)
- 4) Hurlock, E.B., *Developmental Psychology* 14th Ed., New Delhi; Tata Mcgraw-Hill Publishing Co., Ltd., (1978)
- 5) 김 순분, 연령계층에 따른 의복행동의 비교연구. 한국사회사업대학병설실업전문대학논문집제 4집, 145~158, (1979)
- 6) Fraser, Kennedy, *The Fashionable Mind*. New York; Reflections on Fashion, Alfred A, Knppf Inc, 245~306, (1981)
- 7) 민영순, 발달심리학, 교육출판사, 380~382, (1977)
- 8)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19, (1966)
- 9) Rosencranz, M.L., *A Study of Women's Interest in Clothing*, *J. of Home Ec.*, 41, (1949)
- 10) 김애리, 우리나라 주부의 피복비지출실태조사, 의류직물연구 9호. 이화여대가정대학의류직물과. 36~37
- 11) 한명숙, 주부의 의생활태도에 관한 고찰, 상명여자사범대학, 논문제 8집, 308, (1980)
- 12) 이인자, 주부들의 의상가치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연구보고 2집, (1978)
- 13) 이인자, 여성의 직업과 의상흥미영역간의 상관성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9권 4호, 31, (1981)
- 14) 박찬부, 의복행태와 욕구와의 관계,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논문제 6집, 49, (1980)
- 15) Ryan, M.S., *Effect on College Girl of Feeling Well-Dressed*, *Journal of Home Ec.*, 43, 45~46, (1951)
- 16) Marilyn, J. Horn,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51, (1975)
- 17) 유충옥, 복식의상학, 서울, 수학사, 128, (1975)
- 18) Creekmore, A.M. *Clothing Behaviors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the Striving for Basic Need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 (1963)
- 19) Creekmore Anna, M.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Project, 102~109, (1966) 中 Pasnak, Mary F.D의 "Fashion innovators compared with non-innovators on Clothing attitude, Self-actualization and tolerance of ambiguity"
- 20) 박길순, 의복행태와 직업과의 관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0권 4호, 43, (1982)
- 21) 이인자, 의상흥미와 배경간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연구보고제 4집, 62, (1980)